

# 격틀집합을 이용한 한국어 형용사 유형 분류

전 지 은<sup>1)</sup>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great-urrin@korea.ac.kr

최 재 응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jchoe@korea.ac.kr

## The Classification of Korean Adjectives using Case Frame Set

Jeon Jieun  
Dept. of Linguistics  
Korea Univ.

Jae-Woong Choe  
Dept. of Linguistics  
Korea Univ.

### 요 약

형용사 분류에 격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여러 연구에서 제기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격틀이 의미 분류에 기여하는 바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격틀집합’을 활용한다. 격틀집합은 한 개의 어휘가 취할 수 있는 격틀의 집합을 말한다. 격틀집합에 근거하여 형용사를 분류할 경우,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그룹으로 나뉠 수 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이러한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격틀집합정보는 세종전자사전에 들어있는 어휘별 격틀정보를 추출하여 활용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총 101개의 격틀집합 중에서 한 개의 격틀만을 갖는 유형과 어휘목록이 5개 미만인 유형을 제외한 12개의 격틀집합이 주요 분석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6개를 자세히 분석한다. 격틀집합별 어휘들을 살펴보면 의미적 연관성이 파악되지 않는 어휘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의미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통해 국어 형용사 전체의 유형, 더 나아가 국어 용언을 분류하는데 본 연구의 가설과 방법론이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격틀, 격틀집합, 형용사, 유형분류, 세종전자사전)

### 1. 서론

어휘, 그 중에서도 용언의 분류에 격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여러 연구에서 제기된 바 있다. 형용사 분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한 남지순(1993), 유현경(1998, 2000), 김정남(2005) 등의 연구를 보더라도 분류의 핵심 기준으로 격틀이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격틀이 형용사 의미 분류에 어느 정도까지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앞에 언급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두 가지로 입장이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유현경(1998, 2000)과 김정남(2005) [앞으로는 ‘<유-김 분류>’로 칭함] 연구를 보면 격틀을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되, 의미역이나 기타 통사적 특성, 또는 추가 의미적 특성 등이 형용사 분류에 필요하다. 따라서 분류에 격틀정보가 기여하는 바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반면 남지순의 연구에서는 형용사 분류에 격틀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연구에서도 아직은 의미역 정보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격틀이 의미 분류에 기여하는 바를 보다 체계적

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격틀집합’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 ‘격틀집합’이란 한 개의 어휘가 취할 수 있는 격틀의 집합을 뜻한다. 격틀집합에 근거하여 형용사를 분류할 경우,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그룹으로 나뉠 수 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이러한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아울러 그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유-김 분류>는 기존 형용사 분류에 대한 연구 중에서 가장 세밀하고 구체적인 분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김 분류>에서 다루어진 자료를 격틀집합의 관점에서 새롭게 분류해 보기로 한다. 기존 분류로 연구 자료를 한정할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 분석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격틀집합정보는 세종전자사전에 들어있는 어휘별 격틀정보를 추출하여 활용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유-김 분류>를 중심으로 기존의 형용사 분류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다. 3절에서는 세종전자사전에서 격틀집합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비교적 세밀하게 설명하고, 그 추출 결과를 유형별로 제시한다. 4절에서는 격틀집합 유형별 어휘들의 의미적 특성을 분석한다. 5절은 결론이다.

1)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2단계 BK21 사업’의 지원비를 받았다.

## 2. 기존 연구 논의

한국어 형용사 유형 분류에 관한 논의 중 격들과 의미역을 기준으로 접근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남지순(1993)에서는 '심리형용사'류의 형식적 유형을 다음과 같이 재정의 한다. 이는 통사관계에 의해 얻어진 형용사 부류로서, '심리형용사'라는 의미적 정의가 전제되어 설정된 부류가 아니라라는 점을 강조한다.

- (1) (Qu P)0 N1-에 Adj  
N1 (Qu P)0-로 Adj

보문(Qu P) 논항에 의해서 유발되어, 인물명사 N1에 의해 경험되는 '심리적 상태'를 표상하는 것으로 이 형용사 부류를 '심리형용사'로 명명하였다. (남지순1993:102)

- (2) 민우에게는 그들의 지나친 간섭이 몹시 짜증스러웠다.  
민우는 그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몹시 짜증스러웠다.

심리형용사류는 통사적으로 (1)의 두 가지 격들로 나타나고, 이러한 통사적 구문관계가 (2)의 예문에서 보듯이 동의관계를 보인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는 통사적인 격들 관계를 심리형용사의 명확한 형식적인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현경(1998)에서는 국어 형용사의 유형을 광범위한 형용사 용례를 토대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말뭉치에 사용된 빈도순으로 뽑은 2500여 개의 형용사를 주어에 할당되는 의미역을 기준으로 경험주(Experiencer)의 의미역을 받는 '주관형용사'와 대상(Theme)이나 처소(Location)의 의미역을 받는 '객관형용사'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상위 집단은 격들과 통사, 의미적 특성에 따라 12개 유형 및 하위 분류들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다른 형용사 유형과 구분하여 심리형용사의 격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3) 심리형용사는 경험주와 대상의 두 개의 논항을 지니는 서술어이다. (유현경1998:92)

- a. 대상 심리형용사 NP<sub>1</sub>-이 NP<sub>2</sub>-이 Adj  
b. 원인 심리형용사 NP<sub>1</sub>-이 (NP<sub>2</sub>-이)Adj

(3a)의 격들을 지니고 'NP<sub>1</sub>-이'는 경험주(Experiencer)의 의미역을 받으며 'NP<sub>2</sub>-이'는 대상(Theme)의 의미역을 받는 구문을 심리형용사라고 한다. 또한 NP<sub>2</sub>의 특성에 따라 '원인 심리형용사'와 '대상 심리형용사'로 하위 분류한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격들만으로는 심리형용사를 분류하기에는 기준이 반대하다. 이는 남지순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4) '이중 N-이' 유형을 심리형용사류의 기본 문장구조로 간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중 N-이' 구문의 통사적, 의미적 자질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유형화하기 어렵고, 상당수의 경우 그것이 일정 다른 통사구조와 '재구조화(restructuration)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즉, '이중 N-이' 구문은 한국어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형태로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다른 유형의 문장 형태와 관계 맺고 있다. (남지순1993:88)

김경남(2005)에서는 형용사가 어떤 장면에 쓰였느냐에 따라 비상관적 형용사와 상관적 형용사로 1차 분류하고 각각을 다시 의미적, 통사적으로 하위 분류한다. 비상관적 형용사는 다른 대상과의 관련 없이 하나의 대상의 상태나 성질, 존재 양상을 표현하고, 상관적 형용사는 어떤 대상과의 관련 속에서 그 특성이 어떻게 파악되는가의 의미를 나타낸다. 통사적으로는 어떤 명사구들을 보족어로 갖느냐와 보족어를 지배하는 서술어의 결합가에 따라 분류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적, 통사적 하위 부류들간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언급을 한다. 의미론적 특성의 차이가 통사적 특성의 차이를 유발한다는 관점에서, 형용사의 의미론적 분류가 통사구조상의 차이와 어느 정도 연관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접근은 바람직하다.

김건희(2005)에서는 형용사의 논항 구조 및 사건 구조를 고찰하여 형용사의 다층적인 상태가 다양한 논항 구조를 허용하고 복합적인 사건 구조로 표상됨을 밝혔다. 따라서 논항 구조 변화인 논항 교체와 논항 확장을 토대로 형용사를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형용사들의 의미적, 상적, 사건 구조적 특징을 살펴본 연구이다. 형용사를 주어 논항의 의미역을 기준으로 경험주 계열 형용사와 소유주 계열 형용사로 일차적 분류하고 형용사 자체의 고유 의미를 중심으로 이차 분류를 하였다.

##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3.1 연구대상 선정 및 격들정보 추출

본 연구의 자료를 선정하고 필요한 격들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단계: 연구 대상 확보 (<유-김 분류> 명단 및 세종전자사전 자료 확보)

본 연구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참고 자료에서 대상을 선정하였다. 첫째는 유현경(2000)<sup>2)</sup>에서 부록으로 제시한 875개이다. 이는 실제로 말뭉치에서 사용된 빈도순으로 2500여 개를 뽑은 형용사 명단 중 다른 유형은 모두 제시 되어 있지만, 상상형용사가 2297개나 되기 때문에 지면 관계상 목록 전체를 다 보일 수 없고 자모별로 10여 개씩 218개의 명단만을 보인 것이다. 둘째는 김경남(2005)에서 부록으로 제시한 800여개의 명단이다. 이 자료는 연세대학교 사전편찬실에서 발간된 말뭉치의 보고서에서 빈도수 10회 이상 되는 용어들 중 뽑은 것이다. 이 두 자료에서 제시한 명단을 합하여 총 1336개의 형용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98-02, 03, 04, 05년까지 21세기 세종계획의 일환으로 구축된 전자사전의 형용사 정보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각 년도 별로 표제어가 중복되거나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최근년도의 자료를 남기고 이전에

2) 유현경(2000)은 형용사의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국어 형용사의 유형별 특징과 격들을 간단하게 보이고 이에 대한 계량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형용사 목록을 확보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유현경(1998)에서 제시한 형용사 분류의 연장된 논의로 이 논문에는 분류한 형용사 목록이 부록으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참고하였다.

중복된 명단을 제외하여 총 4228개의 xml파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유-김 분류>에 제시된 1336개의 해당 xml 파일을 추출하였다.

2단계: xml 파일에서 격틀 정보 추출

선정된 1336개의 세종전자사전 xml파일로부터 어휘별 격틀정보를 추출하였다. 아래의 표는 추출결과의 일부이다.

input	
세종전자사전의 xml 파일	
output	
orth	entry pos synPtr caseFrame eg
가상하다	1 va 1 N0-이 A 그의 용기는 정말 가상했다.
가상하다	1 va 1 N0-이 A 수민이가 엄마를 위해서 저녁을 지은 것은 참 가상한 일이다.
가상하다	1 va 2 N1-에게는/이 N0-이 A 영숙은 아들의 용기가 가상했다.
가상하다	1 va 2 N1-에게는/이 N0-이 A 수민이가 엄마를 위해서 저녁을 지은 것이 나에게 참 가상했다.
가소롭다	1 va 1 N0-이 A 그의 언행은 참으로 가소로웠다.
가소롭다	1 va 1 N0-이 A 그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정말 가소로웠다.
가소롭다	1 va 2 N1-에게는/이 N0-이 A 나는 네가 참으로 가소롭다.
가소롭다	1 va 2 N1-에게는/이 N0-이 A 나는 그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정말 가소로웠다.
걱정스럽다	1 va 1 N1-에게는/이 N0-이 A 난 내가 걱정스러울 따름이야.
걱정스럽다	1 va 1 N1-에게는/이 N0-이 A 난 지구가 망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걱정스럽다	1 va 1 N0-이 N1-이 A 난 지구가 망할까봐 걱정스럽다.
걱정스럽다	1 va 1 N0-이 N1-에에 대해 A 나는 늘 어머니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스럽다.
걱정스럽다	1 va 1 N0-이 A 철수가 아직 안 와서 내가 걱정스럽다.

[표1] 세종전자사전에서 격틀정보 추출 결과

[표1]에서 추출한 정보는 각 표제어에 해당하는 표제항 번호, 품사, 통사의미결합관련포인트, 격틀, 예문 5가지 사항이다.

추출된 격틀정보를 바탕으로 격틀집합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격틀집합은 하나의 형용사 표제어가 지닐 수 있는 격틀을 하나의 집합으로 삼고 이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삼는 것이다. 즉, 공유하는 격틀을 기준으로 하나의 유형을 형성하게 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5) a. 가상하다  
N0-이 A, N1-에게는/이 N0-이 A
- b. 가소롭다  
N0-이 A, N1-에게는/이 N0-이 A
- c. 걱정스럽다  
N0-이 A, N1-에게는/이 N0-이 A, N0-이 N1-이 A, N0-이 N1-에에 대해 A

(5)는 각 어휘가 지니는 해당 격틀을 보인 예이다. '가상하다'와 '가소롭다'는 'N0-이 A', 'N1-에게는/이 N0-이 A' 두 개의 격틀을 취한다. 그러므로 이 둘은 격틀을 공유하는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 될 수 있다. 하지만 '걱정스럽다'는 'N0-이 A', 'N1-에게는/이 N0-이 A' 외에 'N0-이 N1-이 A', 'N0-이 N1-에

에 대해 A'의 격틀을 추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속하게 된다.

3단계: 격틀 정리 작업

2단계의 결과로 세종전자사전에서 추출한 형용사의 격틀정보를 가능한 한 그대로 활용한다. 하지만 세종전자사전도 정보 입력 시 작성자의 오류로 인한 오타나, 혹은 기술의 형식의 차이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고, 격틀집합 분류를 하기 전에 이를 최소화 하고 교정하는 작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세종전자사전이 98-02년, 03년도와 04년도, 05년도 사이의 격틀 기술의 차이가 있다.

- (6) 98-02, 03년도  
죄송하다 N0-이 N2-에 대해서 N1-에게 A  
지루하다 N1-에게는/이 N0-이 A
- (7) 04, 05년도  
솔깃하다 Y=N1-이 Z=N2-에 X=N0-이 A  
따분하다 Y=N1-에게는/이 X=N0-이 A

04, 05년도에는 각 논항을 X, Y, Z로 설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 차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격틀을 분류할 때 (6)의 '지루하다'에 해당하는 격틀인 'N1-에게는/이 N0-이 A'와 (7)의 '따분하다'의 격틀인 'Y=N1-에게는/이 X=N0-이 A'가 실제로 같은 격틀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의 차이 때문에 다르게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형식으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세종전자사전에서는 '용언사전의 지침서'에서 작성자에 따라 달라진 격틀 기술의 형식적 불일치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8) 현재까지 진행된 용언사전의 격틀 정보 표상에는 몇 가지 형식적 불일치의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다음에 예시된 바와 같은 문제점들은 정보 검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수작업의 부담을 주므로, 수정 보완이 요구되며 특히 기술 교열 시에 참고한다. (세종지침서\_용언2003:15)
- a 조사 대표형 사용  
(표준격틀) N0-이 N1-을 V  
(기술 예) N0-이 N1-를 V
- b 지수부여 및 논항 배열순서, 교체되는 격조사이의 배열순서 문제  
(표준격틀) N0-이 N2-에게 N1-을/에 대해 V  
(기술 예) N0-이 N1-에게 N2-을/에 대해 V  
N0-이 N2-에게 N1-에 대해/을 V  
N0-이 N1-을/에 대해 N2-에게 V
- c 보문 표상의 형식적 오류  
(표준격틀) N0-이 S고1 V  
(기술 예) N0-이 S-고1 V  
N0-이 S-고 V
- d 표기 방식의 불일치  
(표준격틀) N0-이 ADV V  
(기술 예) N0-이 adv V  
N0-이 Adv V

(6), (7), (8)의 오류 사항을 고려한 격틀 정리 작업의 일부를 살펴봐도 좋겠다.

cfta002: N1-에게는 이 N0-이 A (315개)			
a.	N1-에게는 이 N0-이 A	(248)	(대표형)
b.	N0-에게는 이 N1-이 A	(9)	(지수오류)
c.	N0-이 N1-에게는 이 A	(5)	(논항순서)
d.	N1-에게는 이 S것0-이 A	(17)	(논항보문)
e.	N1-에게이 N0-이 A	(9)	(주제화)
f.	N1-에게이 N0-이A	(7)	(띄어쓰기)

위의 표에서 격틀 표현형 옆에 괄호로 표시한 숫자는 빈도수이다. (a)는 'N1-에게는|이 N0-이 A' 유형의 대표격틀<sup>3)</sup>로 가장 빈도수가 높다. 동일한 술어와 논항들로 구성된 문장에서 '-에게는'과 '-이'의 격조사가 규칙적인 교체 현상이 나타난다. (b)는 지수부어의 오류가 나타난다.<sup>4)</sup> (c)는 논항 간의 이동, 뒤섞기(scrambling)가 나타난 것이다. 이것으로 인한 통사구조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a)와 (c)는 같은 유형이라고 본다. (d)는 (a)에서 N0에 해당하는 논항이 보문으로 나타나는 격틀이다. 기본적으로 격틀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논항의 속성 차이가 격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에서 논항 'N1-에게'의 주제화(topicalization)된 것이 (a)의 논항 'N1-에게는'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큰 의미의 차이는 없다. (f)는 단순한 띄어쓰기의 차이로 표기방식의 오류로 이것 역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분류할 경우 서로 다른 격틀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b)-(f)와 같은 오류를 수정하여 격틀집합 분류 시 생길 수 있는 혼란과 왜곡을 줄일 수 있다.

### 3.2 추출된 격틀정보 및 격틀집합

3.1절에서의 절차를 통해 추출된 형용사 표제어의 격틀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격틀번호	격틀	빈도
cfta001	N0-이 A	1898
cfta002	N1-에게는 이 N0-이 A	315
cfta003	N0-이 N1-에 A	197
cfta004	N0-이 N1-이 A	176
cfta005	N0-이 N1-에게에 A	78

3) '세종전자사전의 용언기술 지침서'에는 24개의 형용사 대표 격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기술된 결과를 보면 그 외의 격틀도 높은 빈도수로 나타난다.

4) 세종전자사전지침서에서는 (a)를 대표격틀로 보고 있지만 다음의 지침서 내용에 따르면 (b)가 대표격틀로 더 적절해 보인다.

"논항이 명사인 경우는 N, 보문인 경우는 S로 표기하며, 동사와 논간의 결합정도, 논항의 통사적 기능, 문장 내에서의 위치, 생략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0, 1, 2, 3 등의 지수를 부여한다. 이 때 주어성분에 대해서는 0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3:12)"

cfta006	N0-이 N1-에게 A	65
cfta007	N0-이 N1-로 A	58
cfta008	N0-이 (서로) A	33
cfta009	N0-이 N1-와 (서로) A	31
cfta010	N0-이 N1-에게에게에 대해 A	28
cfta011	N0-이 N1-와 A	20
cfta012	N0-이 N1-에게에 대해 A	19
cfta013	N0-이 N1-이에게 A	19
cfta014	N0-이 N1-이에게 대해 N2-에게 A	16
cfta015	N0-이 N1-에게에 대해 A	10
cfta016	N0-이 N1-보다 A	9
cfta017	N0-이 N1-와 N2-이 (서로) A	8
cfta018	N0-이 N1-어도 A	7
cfta019	N0-이 N1-에게로 A	6
cfta020	N0-이 N1-에서 A	6
cfta021	N0-이 N1-이 (서로) A	6
cfta022	N0-이 N2-와 N1-이 A	6
cfta023	N0-이 N1-에게와 A	2

[표2] 형용사 표제어의 격틀유형

이제 [표2]를 바탕으로 격틀집합으로 분류한다. 다음과 같은 입력자료를 취하여 결과자료가 도출된다.<sup>5)</sup>

input1.		
1898	N0-이 A	cfta001
315	N1-에게는 이 N0-이 A	cfta002
197	N0-이 N1-에 A	cfta003
input2.		
가능하다 N0-이 A                      N1-에게는 이 N0-이 A		
긴요하다 N0-이 A    N0-이 N1-에 A    N1-에게는 이 N0-이 A		
A		
무능력하다 N0-이 A		
output1.		
가깝다 cfta001 cfta003 cfta008 cfta009 cfta0019		
동등하다 cfta004 cfta008 cfta009 cfta016		
근사하다 cfta001 cfta002 cfta005		
관계없다 cfta008 cfta009		
문제없다 cfta001		
output2		
# cfta001(N0-이 A)		
가깝다 가난하다 가날프다 가너리다 가느다랗다 .....		
# cfta001(N0-이 A) # cfta002(N1-에게는 이 N0-이 A)		
가능하다 가쁘다 가상하다 가소롭다 ...		
# cfta001(N0-이 A) # cfta002(N1-에게는 이 N0-이 A) # cfta003(N0-이 N1-에 A)    긴요하다    단순하다.		

[표3] 격틀집합추출과정

5) 격틀집합유형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은 Perl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입력 및 출력 내용과 함께 그 과정을 본문에 비교적 상세히 기술해 놓았다.

output1은 어휘마다 해당하는 격들을 모아 격들집합으로 추출한 결과이다. 이것을 엑셀에서 pivot table기능을 이용하여 격들집합을 기준으로 어휘를 분류하면 output2가 나온다.

분류결과 총 101개의 격들집합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각 유형별로 의미적으로도 서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검토할 유형을 선정한다. 기준은 (9)와 같다.

(9)

- a. 하나의 격들만을 지니는 격들집합은 제외
- b. 격들집합에 해당하는 어휘 개수가 5개 미만인 경우 제외

output1을 보면 '문제없다' 처럼 격들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격들집합(21.8%)에 해당하는 어휘들은 수가 방대하여 의미적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또한 격들을 4개(8.9%), 5개(3.0%)를 지니고 있는 격들집합에 해당하는 어휘들은 5개 미만으로 제외하였다. 어휘를 1개 혹은 2개만 지니는 유형은 실제로 의미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는지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미상관관계를 알아내기 어렵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총 101개의 격들집합 중에 12개를 선정하였다. 다음의 표는 12개의 격들집합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격들집합	어휘개수
유형1	# cfta001(N0-이 A) # cfta002(N1-에게는 이 N0-이 A)	60
유형2	# cfta001(N0-이 A) # cfta003(N0-이 N1-에 A)	44
유형3	# cfta001(N0-이 A) # cfta003(N0-이 N1-에 A) # cfta007(N0-이 N1-로 A)	15
유형4	# cfta001(N0-이 A) # cfta004(N0-이 N1-이 A)	29
유형5	# cfta001(N0-이 A) # cfta005(N0-이 N1-에게 A)	7
유형6	# cfta001(N0-이 A) # cfta006(N0-이 N1-에게 A)	19
유형7	# cfta001(N0-이 A) # cfta007(N0-이 N1-로 A)	5
유형8	# cfta001(N0-이 A) # cfta008(N0-이 (서로) A) # cfta009(N0-이 N1-와 (서로) A)	5
유형9	# cfta001(N0-이 A) # cfta010(N0-이 N1-에게에 대해 A)	8
유형10	# cfta001(N0-이 A) # cfta012(N0-이 N1-에게에 대해 A)	10
유형11	# cfta003(N0-이 N1-에 A) # cfta007(N0-이 N1-로 A)	10
유형12	# cfta008(N0-이 (서로) A) # cfta009(N0-이 N1-와 (서로) A)	9

[표4] 격들집합유형

#### 4. 격들집합 유형의 의미 분석

3절에서는 형용사를 격들집합을 기준으로 12개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절에서는 각 유형

에 해당하는 어휘들 사이의 의미적 상관관계를 살펴보겠다. 의미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유-김 분류>와 함께 '우리말 분류사전', '연세 한국어사전'을 참고하였다.

<b>유형1. (해당 어휘: 60개)</b>
# cfta001(N0-이 A)
# cfta002(N1-에게는 이 N0-이 A)

유형1에 해당하는 형용사는 'N0-이 A'와 'N1-에게는|이 N0-이 A' 두 개의 격들을 지니고, 대체로 유현경의 '심리형용사', 김정남의 '정서, 정서적평가'에 해당한다.6) 다음은 유형1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유-김 분류>의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살펴본 예이다.

(10) 유현경(심리)/김정남(정서, 정서적평가)에 해당하는 예  
기막하다, 기쁘다, 놀랍다, 두렵다, 따분하다, 무섭다, 밉다, 뽀얗하다, 뿌듯하다, 서글프다, 서럽다, 슬프다, 아쉽다, 안타깝다, 애석하다, 어이없다, 억울하다, 언짢다, 유쾌하다, 정겹다, 좋다, 지루하다, 통쾌하다

(11) 둘 중 하나만 해당하는 예

가상하다(-/정서적평가), 가소롭다(심리/-), 가중스럽다(심리/-), 간질하다(-/정서적평가), 거북살스럽다(심리/-), 거북스럽다(심리/-), 경이롭다(심리/-), 꺼림칙하다(심리/-), 낭패스럽다(심리/-), 낯뜨겁다(심리/-), 노엽다(심리/-), 막연하다(성상, 심리/성질), 불안스럽다(심리/-), 비통하다(심리/-), 서늘하다(심리/-), 신통하다(-/성질, 이지적평가), 아니꼽다(심리/-), 애달프다(심리/-), 어렵다(기준, 심리/이지적평가), 여색하다(심리/이지적평가), 역하다(심리/-), 원통하다(심리/-), 재미없다(심리/-), 정그럽다(심리/-), 창피스럽다(심리/-), 후련하다(감각/정서)

(12) 둘 다 해당하지 않는 예

가능하다(-/이지적평가), 기쁘다(감각/감각), 갑갑하다(감각/-), 농후하다(-/분포), 멀쩡하다(감각/-), 메스껍다(감각/-), 불가능하다(-/이지적평가), 서늘하다(-/성질), 크다(-/형상), 편찮다(감각/-), 피로하다(감각/감각)

(10)의 예는 유현경에서 '심리'로 김정남에서 '정서, 정서적평가'로 분류된 것이다. (11)은 <유-김 분류> 중 하나에서만 의미를 확인한 예이다. 유현경(2000)과 김정남(2005)에서 제시하는 형용사 명단 1336개 중 중복되는 어휘는 316개이고 나머지는 두 연구 중 하나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어휘들은 한쪽의 분류를 바탕으로 살펴 본 결과 (10)과 마찬가지로 '정서와 심리'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12)는 두 연구 모두 '심리'가 아닌 다른 부류로 보는 것으로 '우리말 분류사전'과 '연세 한국어사전'을 통해 각 어휘의 풀이를 보면 이 예들 역시 '심리'로 볼 여지가 있다.

6) 김정남은 '심리'라는 말 자체가 의미의 폭이 너무 넓어서 정서나 감각 표현에서 뿐 아니라 다른 이지적인 평가에서도 '심리'라는 요소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리'는 형용사의 의미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본다.(2005:110)

(13) 우리말 분류사전

- 갑갑하다: 마음에 거러저러 거북함
- 떨떠름하다: 감정, 기분, 마음의 상태와 관계되는 말
- 서늘하다: 불안, 걱정, 위험, 놀람

이처럼 '갑갑하다', '떨떠름하다', '서늘하다'는 마음과 감정, 즉 '심리'의 의미를 포함한다. (14)의 '메스껍다', '피곤하다', '크다' 역시 마음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이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로 심리상태와 관계가 깊다. 그러나 '가쁘다', '농후하다'에서는 여전히 '심리'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14) 연세 한국어사전

- 메스껍다: (누구의 태도나 행동이) 몹시 못마땅하고 아니꼽다.
- 피곤하다: (몸이나 마음이) 지쳐서 고단하다
- 크다: (마음이나 몸에 느끼는 어떤 일의 영향이) 심하다.
- 가능하다: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다.
-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가능하지 않다.
- 가쁘다: 숨이 몹시 차다.
- 농후하다: (어떤 성격이나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형1의 격들집합에 속하는 60개의 어휘는 '인간의 심리, 마음'의 의미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가쁘다'와 '농후하다'처럼 예외적으로 다른 의미를 보이는 예도 있으나,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에 불과하므로 격들집합으로 분류한 유형에 속하는 어휘들이 상당부분 의미적으로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b>유형11. (해당 어휘: 10개)</b> # cfta003(N0-이 N1-에 A) # cfta007(N0-이 N1-로 A)
---

이 유형은 대체로 유현경의 '장소교차', '기준' 또는 김정남의 '분포'의 의미를 보인다.

(15) 그들먹하다(장소교차/-), 글썽글썽하다(장소교차/-), 삐죽하다(장소교차/-), 자욱하다(장소교차/분포)

(16) 글썽하다(소재/-), 부적당하다(기준/-), 부적합하다(기준/-), 알맞다(기준/지정), 합당하다(가능/이지적평가), 화사하다(-/성질)

(15)는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기존연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16)의 예는 기존연구에서 서로 다르게 분류하고 있어 의미적으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예들이다. '글썽글썽하다(장소교차)'와 '글썽하다(소재)'는 유현경에서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지만 의미가 유사함을 다음 연세 한국어사전의 뜻풀이를 통해 알 수 있다.

(17) 연세 한국어사전

- 글썽글썽하다: 눈에 눈물이 넘칠 듯이 그득하다.

- 글썽하다: (눈에 눈물이) 넘칠 듯이 가득 고여 있다.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둘은 유의어로 격들도 공유하고 있으므로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18)의 예를 역시 서로 유의어로 유현경은 '장소교차'가 아닌 '기준'으로 분류한다.

(18) 연세 한국어사전

- 부적당하다: (어떤 일에) 적당하지 않다.
- 부적합하다: (어떤 존재나 일에) 알맞지 않다.
- 알맞다: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적당하다.
- 합당하다: 어떤 조건이나 기준에 꼭 들어맞다.

그러므로 유형11은 '장소교차'와 '기준'의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유형11이 하위분류가 가능함을 예측하게 한다.

다음 유형3은 유형11이 포함하는 격들에 'N0-이 A'의 격들이 추가되어 3개의 격들을 공유한다. 유형11은 유현경의 '장소교차' 뿐 아니라 '기준'에 해당하는 어휘들이 나타났지만, 이 유형은 유현경의 '장소교차'나 김정남의 '분포'의 의미만을 보인다.

<b>유형3. (해당 어휘: 15개)</b> # cfta001(N0-이 A) # cfta003(N0-이 N1-에 A) # cfta007(N0-이 N1-로 A)
---

(19) 그득하다(장소교차/-), 떠들썩하다(장소교차/기타상태), 무성하다(-/분포), 뻑뻑하다(성상,장소교차/분포), 뽕얇다(장소교차/-), 뽕얇다(장소교차/-), 소란하다(장소교차/기타상태)

(20) 넉넉하다(-/기타상태), 무질서하다(-/형상), 반들반들하다(성상/-), 분주하다(-/성질, 정서적평가), 빨강다(성상/성질), 요란하다(-/형상), 지지분하다(-/기타상태), 혼란스럽다(감각/-)

(20)처럼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예를 '연세 한국어사전'의 뜻풀이를 살펴보면 (19)의 어휘와 유의관계를 보인다.

(21) 연세 한국어사전

- 그득하다: (분량이나 수효가 제한된 공간 안에) 한껏 차 있다.
- 무성하다: (무엇이) 많이 있거나 퍼져 있다.
- 뻑뻑하다: (사람이나 물건) 사이가 거의 없을 만큼 촘촘하다.
- 넉넉하다: (어떤 기준을 채우고도) 남다. 모자라지 않다. 모자라는 것이 없다.

'그득하다', '무성하다', '뻑뻑하다'는 유현경은 '장소교차'로 김정남은 '분포'로 분류하고 '넉넉하다'의 경우 유현경의 분류에 나타나지 않은 어휘이고 김정남은 '기타상태'로 분류한다. 하지만 (21)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채워져 있음'의 의미를 지닌 유의어이므로 같은 유형으로 본다.

‘떠들썩하다’, ‘소란하다’ 는 유현경의 ‘장소교차’에 속하는데,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22)의 예들 역시 같은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2) 연세 한국어사전

- 떠들썩하다: (사건이나 사고로) 분위기가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 소란하다: 시끄럽고 무질서하며 어지럽다.
- 요란하다: (소리가) 몹시 크고 시끄럽다.
- 분주하다: 몹시 바쁘거나 수선스럽다.
- 무질서하다: 차례나 규칙이 지켜지지 않아 혼란스럽다. 질서가 없다.
- 혼란스럽다: 질서가 없다. 뒤섞여서 어지럽다.
- 지저분하다: (쓰레기 따위가 널려 있어) 더럽다. 주변사항, 분위기.

(23) 우리말 분류사전

- 뽀얗다: 빛깔
- 뿌엷다: 빛깔
- 빨강다: 빛깔
- 반들반들하다: 빛깔

‘뽀얗다’, ‘뿌엷다’는 유현경의 ‘장소교차’에 속하고, ‘빨강다’, ‘반들반들하다’는 ‘성상’에 속한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말 분류사전에서 공통적으로 ‘빛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인다. 그러므로 ‘빨강다’, ‘반들반들하다’ 역시 ‘뽀얗다’, ‘뿌엷다’와 마찬가지로 ‘장소교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유형11과 유형3은 <유-김 분류>에서 ‘장소교차’, ‘분포’의 의미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다만 유형3은 ‘장소교차’의 의미만을 보이는 반면 유형 11은 ‘장소교차’ 외에 ‘기준’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들도 포함한다. 유형11의 경우 포함하는 격들의 개수가 2개이고, 유형3은 3개로 이는 유형11의 격들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격들집합이다. 이를 통해 격들집합유형이 포함하는 격들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당 어휘의 의미상관계가 더 깊어진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유형6. (해당 어휘: 19개)**

- # cfta001(N0-이 A)
- # cfta006(N0-이 N1-에게 A)

유형6에 해당하는 어휘는 대부분 유현경의 ‘성상’, 김정남의 ‘태도’에 속한다.

(24) 나긋하다(성상/-), 다소곳하다(성상/-), 뽀뽀하다(감각, 성상/-), 상냥하다(-/태도), 싸늘하다(성상/성질, 태도), 쌀쌀하다(성상/감각적평가, 성질, 태도), 자상하다(성상/형상), 잔인하다(-/성질, 태도), 진실하다(-/성질, 태도), 친절하다(-/태도), 흑독하다(-/태도)

(25) 교활하다(-/성질), 낮간지럽다(심리/-), 만족스럽다(심리/정서적평가), 알뜰하다(-/성질), 애처롭다(-/정서적평가), 자연스럽다(-/성질)

(24)의 예들은 <유-김 분류>를 통해 의미적인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25)에 속한 의미적인 관련이 적어 보이는 어휘에 관하여 사전에서 뜻풀이를 확인하면 (26)과 같다.

(26)

- 교활하다: 몹시 간사하고 나쁜 꾀가 많다.
- 낮간지럽다: (사실이 아님을 알아서) 말하거나 듣기에 거북하다.
- 만족스럽다: 아주 마음에 들다
- 알뜰하다: 태도, 몸가짐, 망설임
- 애처롭다: 감정, 회노애락, 기분, 혐오
- 자연스럽다: 거짓으로 꾸미거나 인공적인 데가 없어 어색하지 않다.

‘교활하다’, ‘알뜰하다’, ‘자연스럽다’의 경우 김정남에서 ‘성질’로 분류되지만, 사전 뜻풀이를 확인해보면 ‘태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낮간지럽다’, ‘만족스럽다’, ‘애처롭다’는 ‘태도’라기 보다 ‘심리’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유형 6에 해당하는 어휘들은 3개의 어휘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현경 ‘성상’, 김정남 ‘태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b>유형12 : (해당 어휘: 9개)</b> # cfta008(N0-이 (서로) A) # cfta009(N0-이 N1-와 (서로) A)
관계없다(기준, 판단/이지적평가), 동일하다(대칭/비교), 밀접하다(대칭/비교), 비슷비슷하다(대칭/-), 비슷하다(대칭/비교), 엇비슷하다(대칭/-), 여하하다(대칭/-), 유사하다(대칭/비교), 판이하다(대칭/비교)
<b>유형8 : (해당 어휘: 5개)</b> # cfta001(N0-이 A) # cfta008(N0-이 (서로) A) # cfta009(N0-이 N1-와 (서로) A)
긴밀하다(-/비교), 막역하다(대칭/-), 어긋비슷하다(대칭/-), 친하다(대칭/비교), 평등하다(-/비교)

유형12와 유형8은 유현경의 ‘대칭’, 김정남의 ‘비교’에 해당하는 어휘들이다. 우선 cfta008, cfta009 두 개의 격들을 포함하는 격들집합 유형12에 해당하는 어휘들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27) ‘다르다’ 류

- 관계없다: 관계되는 바가 없다. 관계되지 않다.
- 판이하다: 아주 다르다

‘관계없다’의 경우 유현경 ‘기준, 판단’, 김정남 ‘이지적평가’로 분류하고 있지만 (27)의 뜻풀이를 살펴보면 ‘관계없다’는 ‘판이하다’와 의미가 관련이 있다. 마찬가지로 다음 (28)의 예들은 ‘유사하다’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28) ‘유사하다’ 류

- 동일하다: 둘 또는 그 이상의 것이 차이가 나거나 다른 데가 없이 똑같다.
- 밀접하다: 서로의 관계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

- 비슷비슷하다: 여럿이 다 비슷하다.
- 비슷하다: 닮은 점이 있어 거의 같다.
- 엇비슷하다: 어지간하게 비슷하다.
- 여하다: 같다
-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처럼 (27), (28)의 유형12에 해당하는 어휘들은 '둘 간의 관계가 유사함 혹은 다름'의 의미를 보인다.

유형8은 유형12의 격틀에 'N0-이 A' 격틀을 하나 더 포함하여 세 개의 격틀을 포함하는 격틀집합으로 유형12와 마찬가지로 유현경의 '대칭', 김정남의 '비교'의 의미를 보이는 어휘들을 지닌다. 각 어휘별 사전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29)

- 긴밀하다: 매우 가깝고 밀접하다.
- 막역하다: (친구 사이에) 뜻이 맞아 서로 아주 친하다.
- 어슷비슷하다: 큰 차이 없이 서로 비슷비슷하다.
- 친하다: 사이가 밀접하다.
- 평등하다: 차별이 없고 동등하다.

(29)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유형8은 '둘 간의 관계'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서로 밀접하고 유사한'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유형8, 12는 크게는 유현경의 '대칭'이나 김정남의 '비교'에 해당한다. 하지만 각 유형에 해당하는 어휘의 의미를 사전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형8은 '둘 간의 관계' 중에서도 '서로 밀접하고 유사한'의 의미만을 포함하고 유형12의 경우 '유사한' 뿐만 아니라 '다름'의 의미도 나타난다. 이는 유형12는 격틀을 2개, 유형8은 격틀3개를 포함하는 격틀집합으로, 포함하는 격틀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해당하는 어휘간의 의미의 상관관계가 더욱 밀접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세종전자사전의 격틀정보를 활용하여 형용사 유형 분류의 객관적인 방법론을 고찰해 보았다. 하나의 형용사 표제어가 취할 수 있는 격틀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보고, 같은 격틀 집합을 지니는 어휘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보았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총 101개의 격틀집합 중에서 한 개의 격틀만을 갖는 유형과 어휘목록이 5개 미만인 유형은 제외하고 12개의 격틀집합을 살펴보았다. 격틀집합별 어휘들을 살펴보면 의미적 연관성이 파악되지 않는 어휘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의미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격틀집합 자체만으로 의미 분류가 완전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또한 세종 전자사전에서의 분석에 작성자 개인별 직관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에서의 객관성 추구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격틀집합의 개념이 형용사의 의미 분류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밝혔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형용사 전반, 또는 용언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세종전자사전을 적극 활용하는 전산적 방법론을 이용하였다는 점과 기존연구들에 비해 분류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게 제

시하여 방법론적 객관성 제고를 추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1] 김건희 (2005), 한국어 형용사의 논항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 김정남 (2005), 국어 형용사의 연구. 역락.
- [3] 남지순 (1993), 한국어 형용사 구문의 통사적 분류를 위하여 -심리형용사 구문-. 어학 연구 29-1.
- [4] 유현경 (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5] 유현경 (2000), 국어 형용사의 유형에 대한 연구. 국어학 36.
- [6] 남영신 (2000), 우리말 분류사전, 성안당
- [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2003),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